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직 위	부연구위원 연구원	성 명	김효주 김해람
출장기간	2019년 9월 18일- 2019년 9월 22일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목적	<input type="checkbox"/> OECD에서 주관하는 제3차 OECD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국가들의 경험 및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이슈들에 관한 의견 공유					
경비부담	-김효주(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 김해람(성인지예산센터 연구원) / 본원 예산 *과제명: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주최기관	OECD○					
	기관/참석자			행사내용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주 부연구위원/김해람연구위원○ OECD -Edwin Lau(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division, Head)/Scherie Nicol(Senior policy analyst) 외○ IMF -Carolina Renteria(Fiscal Affairs Department, Public Financial Management I, Division Chief)○ UN Women -Katherine GIFFORD(Governance and National Planning, Policy Specialist)○ World Bank -Urska ZRINSKI(PEFA Secretariat, Public sector specialist)○ 그 외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20여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의 공무원 및 전문가 60여 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의 평등예산○ 환경정책, 인프라개발과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부재에 대한 대처방법○ 성인지예산의 효과성: OECD 사례분석○ SDG예산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에서의 교훈		

※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2019. 10. 21

출 장 복 명 자 : 김 효 주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 제3차 OECD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 지 예 산 센 터

1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 OECD에서 주관하는 제3차 OECD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결과 전문을 작성함. 회의의 주요 안건은 ①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효과성 검토,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 논의, ③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효과 공유임
- ☐ 회의 참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국가들의 경험 및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이슈들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국의 제도 변화사항에 대해 정리함
- ☐ 본 회의는 제1차 회의(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2017.5.18.~5.19) 및 제2차 회의(오스트리아 비엔나, 2018.6.18.~2018.6.20.)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됨. OECD로부터 1차 참석 및 2차 참석에 이어 지속적인 참석 요청이 있었음

2. 출장 개요

- ☐ 출장지역: 프랑스, 파리
- ☐ 출장기간: 2019.9.18(수) ~ 9.22(일)(3박 5일)
- ☐ 출장자: 김효주 부연구위원, 김해람 연구원(이상 성인지예산센터)

3. 출장 일정

날짜	일정	상세내용
9/18 (수)	◆ 출국 인천(한국) → 파리(프랑스)	
9/19 (목)	◆ 전문가 회의 참석	Opening Session 1 - OECD Scan: Equality budgeting in Ireland Session 2 - Gender budget statements Session 3 - Breakout sessions Option A : Environmental policy and gender budgeting Option B :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gender budgeting Session 4 - Sustainability of gender budgeting initiatives
9/20 (금)	◆ 전문가 회의 참석	Session 5 - Panel on gender indicators and data gaps Session 6 - Impact of gender budgeting: OECD case studies Session 7 - Lessons from gender budgeting for SDG budgeting

날짜	일정	상세내용
9/21 (토)	◆ 파리(프랑스) → 인천(한국)	회의 정리 및 파리 출국
9/22 (일)	◆ 입국 파리(프랑스) → 인천(한국)	

* 출장계획안의 'Session 5-Dealing with data gaps'와 'Session 6-Gender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가 'Session 5-Panel on gender indicators and data gaps'로 함께 진행됨에 따라 출장계획안 대비 Session 수가 변경됨. 단, 회의 진행 시간은 동일함.

2 출장 결과

1. 회의 내용 요약

가. 아일랜드의 평등예산(Session 1-OECD Scan: Equality budgeting in Ireland)

● 발표 1

- ☐ 아일랜드는 평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적 대응과 전략을 요구함. 이에 2017년 평등예산이 성과주의 예산 시스템 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평등예산에는 젠더, 장애, 소수집단, 건강과 복지, 교육, 주택 등의 9가지 범주가 포함됨. 이 중 젠더와 관련된 평등예산 추진은 적절한 제도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했음
- ☐ 성인지예산 시행과 관련하여 아일랜드가 갖추고 있는 제도적 기반은 국가적 전략,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에 불과함. 그러나 성인지예산 시행은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훈련과 능력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며,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고 개선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
- ☐ 평등예산의 효과 증대를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함. '참여 부처에 인센티브를 제공(일종의 협상의 개념. 업무 과부하를 고려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 '평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 '예산서와 함께 평등예산서 상정', '부처의 역량 개발과 데이터 수집능력 향상' 등.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다면 이 후 아일랜드의 평등예산은 크게 발전될 수 있음

● 발표 2

- ☐ 개인별로 평등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되고 분리된 데이터의 확보가 평등예산 성공의 중요한 요인임. 평등예산은 예산이 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보여주는 ‘equality proofing’ 과정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데, 이 때 ‘equality proofing’에 있어 분리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함. 이런 이유로 평등예산 특히 젠더와 장애와 관련된 평등예산의 ‘equality proofing’에 사용될 수 있는 행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통계청과 협업을 할 계획임
- ☐ 그 외 추가 업무라는 인식보다는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부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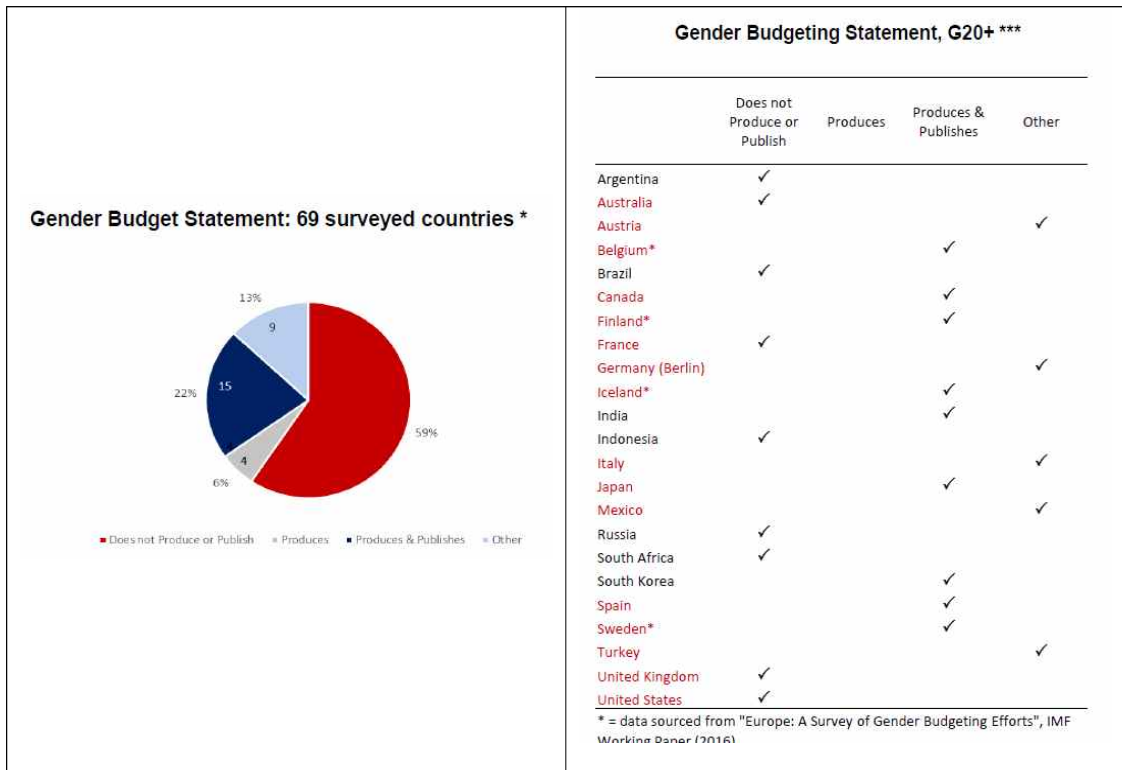
나. 성인지예산서(Session 2-Gender budget statements)

● 발표 1

- ☐ 캐나다의 성인지예산 분석은 GBA+에 기초함. GBA+는 민족, 연령,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교차성을 가진다는 것을 반영한 분석기법임. 예산에 대한 GBA+는 범위와 내용에 있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성평등이 예산의 주요 포커스였음
- ☐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 분석 과정의 소통을, OECD 관계자의 경우 정치적 의지를 강조함

● 발표 2

- ☐ IMF는 성인지예산의 광의의 개념(성평등 증진+여성의 발전)을 적용함.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한 요소로 2018년 IMF가 조사한 69개 국 중 15개 국가(22%)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었으며, 4개 국가(6%)는 작성은 하지만 발간은 하지 않고, 9개 국가(13%)는 다른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고 있었음. 구체적인 결과 및 예시는 다음과 같음



□ IMF의 조사와 관련하여 성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 아일랜드의 경우 성인지예산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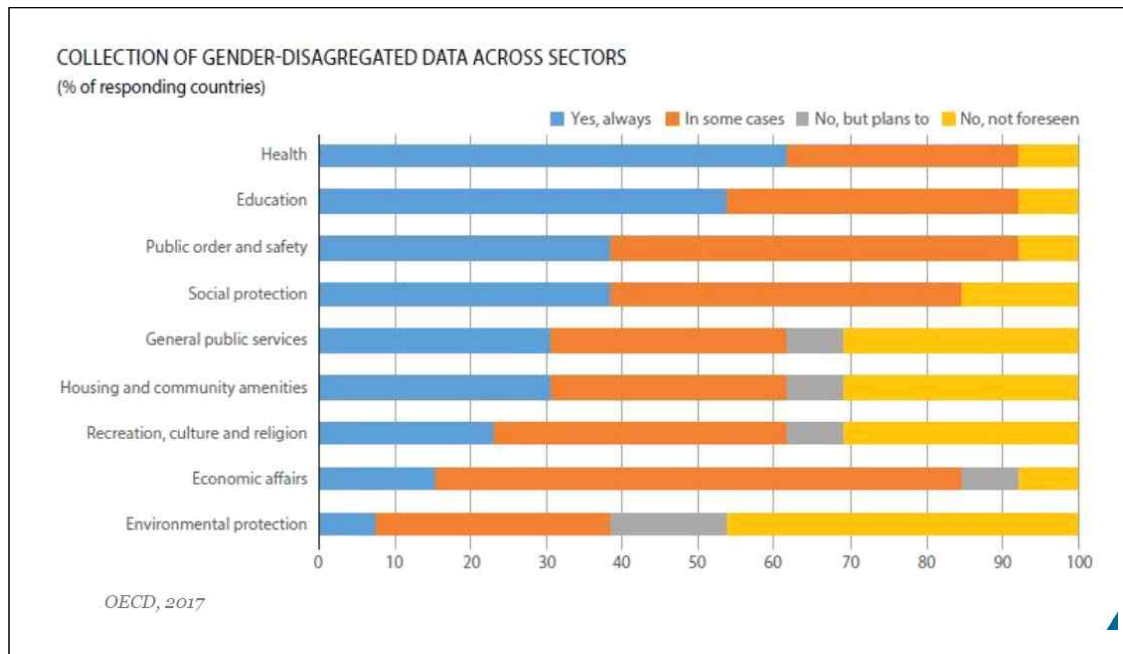
다. 환경정책, 인프라개발과 성인지예산제도(Session 3 - Breakout sessions / Environmental policy and gender budget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gender budgeting)

● 발표 1

□ 환경은 성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에 환경 정책과 예산 역시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OECD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첫째 화학물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여성과 남성은 호르몬 등의 차이로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다른 영향을 받으며, 직업의 차이, 행태와 소비 패턴의 차이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도 다름)의 차이, 둘째 여성과 남성의 행태 및 소비패턴의 차이(공기의 질에 대한 성별 만족도 차이, 교통수단 이용의 차이, 재활용 등에 대한 선호의 차이 등)로 설명하고 있

음. 또한 환경 분야의 여성 과소대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관련 예산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른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 문제임. 다른 부문에 비해 성별분리통계 구축이 미흡함



● 발표 2

□ 인프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중립적이라고 믿어옴.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요구되는 성 역할과 경제적 지위, 선호에 따라 인프라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활과 성평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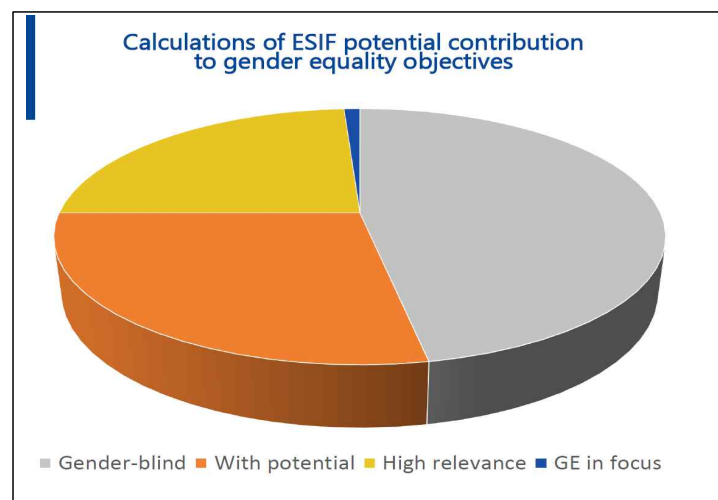
□ 위생시설, 교통인프라, 관련한 안전 문제들에 있어 성별 고려가 요구되나 해당 분야는 남성 독점 혹은 여성 과소대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인프라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통합하고 인프라 부문의 성별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OECD는 인프라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더 많은 젠더 이슈를 포함하고 여성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제안함

- 그 외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프라 이슈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이슈라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다른 이슈에 비해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를 위한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성별분리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됨. 또한 유럽 대부분의 예산이 개발 예산으로 예산의 성인지적 변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 의지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됨

라. 성인지예산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성(Session 4-Sustainability of gender budgeting initiatives)

● 발표 1

- EU 회원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배분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성 주류화 정책이 적용되고 성평등이 예산편성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친화성을 높여 정치적 의지를 고취시키고 재정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게 성평등을 목표화할 것이며, 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이 중 핵심은 모니터링임

● 발표 2

-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성 불평등이 존재함. 그러나 성평등은 단순한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이슈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계속해서 달성해나가야 하는 목표이므로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며, 이 때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산임. 정책수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임. G+ 방법론에 따라 안달루시아의 2019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72.4%가 성평등과 밀접한 관계(G+)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g0) 예산의 비율은 0.8%에 불과함

- 현재까지 안달루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법적 인 근거, 전략적인 리더십,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총체적 접근, 문화적인 변화로 요약될 수 있음. 인터뷰에 따르면 특히 인식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마. 데이터 부재에 대한 대처방법(Session 5- Panel on gender indicators and data gaps)

● 발표 1

-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는 이를 뒷받침해줄 데이터를 구축하는게 어려움. 성평등 지표는 성평등이라는 목표와 연계되고 성인지예산과도 연계되어야 하며 책임성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함. 지표가 너무 많아지면 초점을 잃게 되고 성과에만 집중할 경우 큰 그림을 놓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함
- 그러나 이런 점에 주의하여 작성된 지표라도 현실에 오게되면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단순화되면서 변질되는 문제가 생김. 좋은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각자의 역할(주요 젠더 기관: 지표와 목표의 발전 지원, 통계 기관: 데이터의 접근성 제고, 정부 기관: 인센티브 제공, 기타 성평등 관련 기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공)을 다할 것을 제안함

● 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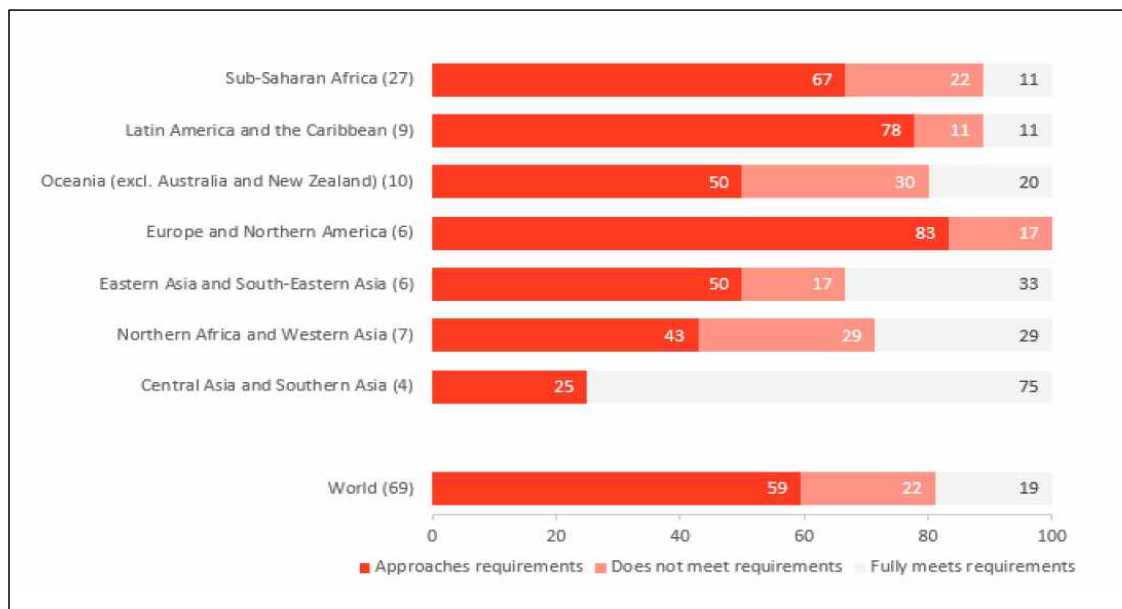
- 성별분리통계는 전체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게 해 줌.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 통계는 성별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제시되어야 함.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될 때 중요한 여

러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성과(성평등)를 측정할 지표와 연속성을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임

-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부, 외부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임. 현재 한 주에 한 번 부처가 모여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논의 과정의 내용들이 실천되는 경우가 많음.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갈 수 없음.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인 압박도 일부 작용함. 이는 페미니스트 정부일때와 아닐 때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정치적 의지는 OECD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발표 3

- UN WOMEN은 성평등과 여성 우대정책을 위한 ‘정책과 자원’, ‘자원배분을 위한 시스템(PFM)’, ‘공개성, 투명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6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함(2018년). 이 중 19%의 국가가 모든 지표를 충족하였으며, 59%의 국가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실천하고 있었음



- 결과를 종합해보면, 젠더감사 등을 통해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발표 4

- 젠더와 관련된 54개의 SDG 지표 중 14개 만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데이터 부재의 문제는 통계 구축의 문제로 이어지며 그 결과 13%의 국가만이 성별 통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국가 통계에 성인지적 관점이 접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적,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함
- 데이터 및 통계와 관련된 이상의 발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비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50:50의 수치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60:40과 같이 특정 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을 통해 명확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 성평등의 비율은 합의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함. 또한 성평등 담당 부서와 통계국의 긴밀한 협조가 강조됨

바. 성인지예산의 효과성:OECD 사례분석(Session 6-Impact of gender budgeting: OECD case studies)

● 발표 1

-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선정한 것은 두 나라 모두 지속적으로 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성인지예산제도 발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그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했음
- 국가별 사례를 예시로 보면, 캐나다의 경우 공항에 키오스크를 설치함에 따른 접근성의 성별 차이, 범죄 발생률과 관련 증상, 회복속도 등의 성별 차이 등이 GBA+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며 관련 목표가 명시됨. 아이슬란드의 경우 생리대의 세금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법이 제정된 사례가 예시로 제시되었으며, 아버지 휴가의 휴가일수와 지원금이 점차 확대되며 성평등을 증진시킨 사례를 발표하였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하나는 성별영향평가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성평등의 우선순위를 제고하였다는 것임

사. SDG예산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에서의 교훈(Session 7-Lessons from gender budgeting for SDG budg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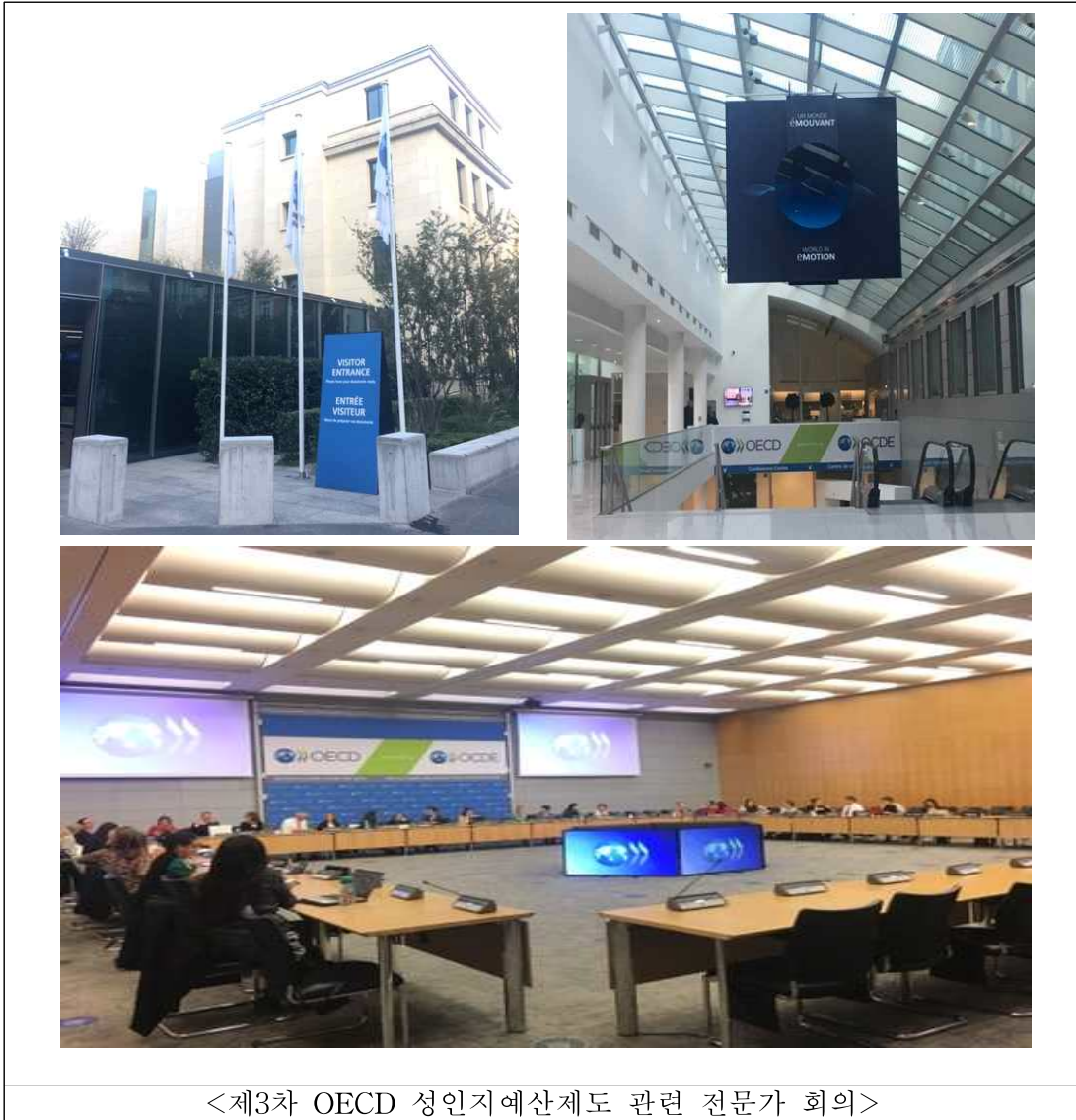
● 발표 1

□ 멕시코는 2008년부터 성평등 증진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2012년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 2008년~2020년까지 멕시코의 성인지 예산 평균 증가율은 약 26%로 나타남

□ 멕시코는 2017년 SDG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UN의 2030 아젠다(17개의 지속 가능한 목표와 169개의 지표로 구성)와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 예시는 아래와 같음

SDGs goals	2018 Number of bp	2019 Number of bp	2020 Number of bp
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60	67	60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44	61	48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65	69	77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63	76	83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26	28	32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17	19	22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58	58	65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82	94	101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111	110	105

SDGs goals	2018 Number of bp	2019 Number of bp	2020 Number of bp
Goal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29	32	34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77	86	79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41	40	39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20	20	21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8	26	24
Goal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21	22	21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183	189	196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1	41	39



<제3차 OECD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